

함께 읽기, 꽃 피우다 함께 읽는 서울교육 선언

독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 학생은

책을 통해 삶을 성찰하며,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이웃과 세상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교원은

책을 늘 가까이 하고 다양한 책을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리 학부모는

책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가꾸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책을 읽고 토론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힘쓴다.

우리 교육청, 출판계, 독서 단체는

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함께 읽는 환경을 마련하여, 서울교육가족이 함께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고 적극 지원한다.

오늘 우리는 혁신서울교육의 독서문화공동체로서 함께 읽고 소통하며 더불어 숲을 이루는 독서 문화의 새로운 장을 펼친다.

함께 읽기, 꽃 피우다



'가방에 책 한 권'은
늘 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는 모습이 일상화 되는 것으로,
독서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나누며
'책 읽는 시민 · 토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입니다.

2018 상반기
책 새롭게 읽기
북 토크

빛이 비치는 쪽으로 『소년이 온다』 함께 읽기

- | 일 시 | 2018. 4. 25.(수) 14:00~16:30
- | 장 소 | 예원학교 대강당
- | 참 석 자 | 초·중·고 교직원 희망자 500명 내외
- | 문화 공연 | 낭만씨어터의 음악낭독극 '소년이 온다'
- | 도 서 명 | 『소년이 온다』
- | 초청 저자 | 한 강(작가)
- | 강연 주제 | 빛이 비치는 쪽으로- 『소년이 온다』에 대하여

| 소년이 온다 |

한강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이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저자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쓰여진 이 소설은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를 통해 한강만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1980년 5월을 새롭게 조명한 작품이다.



“이 소설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 소설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느꼈다.”는 작가 스스로의 고백처럼, 소설가 한강의 지금까지의 작품 세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만해문학상(2014),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2017) 수상작

| 한 강 |

정통적 소설 문법과 섬세한 감수성, 그리고 비극적 세계관을 특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강 작가는 1993년 『문학과 사회』에 시를 발표하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작품으로 장편소설 『그대의 차가운 손』, 『검은 사슴』,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흰』, 소설집으로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노랑무늬 영원』,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이 있다.

한국소설문학상(1999),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0), 이상문학상(2005), 동리 문학상(2010), 만해문학상(2014), 황순원 문학상(2015), 맨부커 인터내셔널상(2016), 말라파르테 문학상(2017) 수상

| 낭만씨어터 |

뮤지컬극단 낭만씨어터는 2017년 ‘서울청년예술단’에 선정이 되어 <서울시 25개 지역구 공연투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카페, 미술관, 갤러리, 야외공간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변적인 형태의 공연을 위주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2017년 기형도 문학관 개관식 초청 공연을 비롯하여 소설, 시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음악낭독극으로 제작하여 공연하고있다.

출연 : 홍윤희, 김다현, 김현식, 정효정 작곡 : 백은숙 반주 : 백영록

